

빠른 정산에 판촉행사 돌입... 티메프 피해 셀러 지원 속도

11번가 100만원 상당 광고포인트 라이브방송 서비스 제작 지원도

**롯데온 '온라인 동행축제' 참여 CJ온스타일 대금지급일 단축
오늘의집 '매일 정산제' 도입**

유통업체가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판매자들을 돕기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11번가는 지난달 29일 티메프 사태로 정산 지연 피해를 본 중소판매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판매 지원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100여 명의 셀러와 진행한 해당 간담회에는 박현수 CBO(최고사업책임)가 직접 나와 신규 판매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과 함께 e커머스 업계 최고 수준의 빠른 정산 시스템, 11번가의 다양한 셀러 지원 프로그램 등을 소개했다. 또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셀러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11번가는 9월 초 열리는 추석 특별 기획전에 참여하는 셀러에게 100만 원 상당의 광고포인트를 즉시 지급한다.

11번가에 처음 입점하는 셀러라면



지난 29일 서울 중구 SK텔레콤 T타워에서 진행된 정산지연 피해 중소판매자들을 위한 '판매 지원 간담회'에서 11번가 박현수 CBO(최고사업책임)가 새로운 판매지원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있다. /11번가

11번가가 제공하고 있는 신규 셀러 지원 혜택인 60만 광고포인트를, '오리지널셀러'인 경우 50만 광고포인트를 추가로 수령할 수 있어 최대 210만원 상당의 광고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다.

추석을 앞두고 판로 확대가 필요한 셀러들을 위해 다음달 초 추석 특별 기획전도 실시한다. 셀러들이 11번가 시스템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전담 MD(상품기획자) 제도'도 운영한다.

또 11번가의 라이브방송 서비스인 '라이브11' 제작도 지원한다. 라이브방

송PD와 쇼호스트, MD 등이 참여해 각 셀러를 위한 방송을 기획해 판매 기회를 넓힐 예정이다.

박현수 CBO(최고사업책임)는 "함께 등을 맞대고 간다면 혼자서 있는 것보다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중소판매자들과의 간담회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정산지연 피해 셀러 모임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의 신정권 위원장은 "11번가가 먼저 피해 셀러들의 목소리를 듣고 지원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자

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많은 셀러들이 힘든 처지에 있지만 11번가와 함께 판매 활성화를 통해 원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롯데온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판촉행사에 돌입했다. 롯데온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판촉에 나섰다. 중소 셀러에게 매출 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테마로 온라인 행사장을 운영한다.

우선 다음달 28일까지 '온라인 동행 축제'에 참여한다. 동행축제는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대규모 행사다. 롯데온은 선정된 7000여 중소 판매자를 위해 '살맛나는 행복쇼핑 동행축제 2024' 행사를 연다.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마련된 온라인 행사도 있다. 경상북도경제진흥원과 전통시장을 돕는 '경북남만시장 페스타'도 진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과 손잡고 '추석맛이 원주시 우수 농수산물 할인전'과 '한가위 쇼핑 양양'을 운영하는 한편, 경북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과 협업해 '추석맛이 문경시 감사 기획전'도 운영한다. 지역별 우수

한 특산품을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다. 다음달 2일부터 11일까지 '온마음 한가위' 행사도 진행한다.

롯데온 관계자는 "중소 셀러를 위한 판촉 쿠폰에서부터 노출 지원 배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을 고민했다"며 "셀러와 고객 모두가 풍요로운 명절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CJ온스타일은 9월 판매분부터 협력사 대금지급일을 기존 평균 12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현금 선지급율(결제 후 최소 5일~최대 15일 이내 지급)도 80% 이상으로 높인다. 정산조건에서 기존 필수사항이던 일정 매출초과 조건도 없었다. 판매처 대금 정산에 대한 협력사의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오늘의집은 '매일 정산제'를 도입했다. 기존 월 2회 정산 시스템을 개편해 매일 정산된 판매금액을 파트너에게 지급한다. 도입 시기는 다음달부터다. 최근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후 일정산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곳은 오늘의집이 처음이다.

이번 개편으로 오늘의집은 소비자의 구매확정 기준일을 중심으로 '+2영업일(월~금 평일 기준)'에 판매금액을 파트너에게 정산하게 된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현대백, 맛·건강 선물 '환경친화적 한우' 인기

동물복지 등 자연친화 환경 사육 한우 산지 확대·물량 30% 늘려

올 추석 가치소비 트렌드 확산에 '환경친화적 한우' 선물이 인기를 끌고 있다. 맛과 건강을 동시에 선물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속 가능한 먹거리를 선택하는 고객이 늘고 있어서다.

현대백화점은 올해 추석 선물세트 예약판매 기간(2024년 8월 9일~29일) 환경친화적 한우 선물세트 예약 고객이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환경친화적 한우는 동물복지, 방목생태축산, 저탄소, 유기농 등 자연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현대백화점 '대곡목장 방목생태축산 한우 세트' /현대백화점

축산 환경에서 사육한 한우를 말한다. 강우재 현대백화점 축산 바이어는 "동물복지나 유기농 방식으로 사육한 한우는 각종 영양소가 풍부하다고 알려

져있어 건강한 선물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며 "가치소비 트렌드 확산에 맞춰 올 추석 환경친화적 한우 산지를 확대하고 물량을 지난해보다 30% 늘렸다"고 말했다.

우선, 현대백화점은 올해 추석에 대곡농장, 샫갯농장 등 방목생태축산 한우 신규 산지를 발굴해 새롭게 선보였다. 방목생태축산은 가족을 방목해 자유롭게 기르는 방목 사육 방식이다.

특히 방목지에서 자란 풀과 이를 먹고 자란 가축의 분뇨가 다시 땅으로 돌아가는 '자연순환 시스템'을 구축해 지속가능한 축산을 실천하는게 특징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신세계L&B, 와인 '친환경 패키지' 도입

100% 재활용·생분해 가능

신세계L&B가 국내 와인업계 최초로 100% 재활용·생분해 가능한 '와인앤모어 친환경 펄프 패키지'를 도입하며 친환경 소비문화 선도에도 나선다.

신세계L&B는 국내 1위 와인 수입사로서 과도하게 발생하는 포장재 문제에 주목, 무림P&P와 공동 개발한 친환경 패키지를 선보인다고 1일 밝혔다. 패키지는 국내 유일의 천연 생(生) 펄프 소재로, 일반 토양에서도 6개월 이내에 완전 분해된다. 특히 유럽 인증기관 TUV 오스트리아의 최고 등급 생분해성 인증 'OK 컴포스트 홈'을 획득했다. 국내 펄프물류 중 유일하게 '식품안전시스템인증(FSSC 22000)'을 보유해 더욱 안전하고 위생적인 것은 물론, 뛰어난 내구성과 강도까지 갖췄다.

세련된 디자인도 돋보인다. 와인병



3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와인앤모어 역삼센터 펄프점에서 모델들이 신세계L&B가 국내 와인업계 최초로 도입한 '와인앤모어 친환경 펄프 패키지'를 소개하고 있다. /신세계L&B

모양의 디자인과 펄프 특유의 자연스럽고 매끄러운 질감으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특히 패키지 슬리브(종이피지)는 고객 취향에 맞춰 간단한 메시지부터 로고, 이미지 등을 활용한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해 단체 선물 혹은 특별한 날 맞춤형 선물로 제격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롯데백, 부담없는 명절선물 K-디저트 선배

한과·양갱 등 매출 전년비 50%↑ 품목 3배 늘리고 물량 30% 확대

최근 2030세대를 중심으로 'K 디저트'가 명절 선물 세트에 인기를 끌면서 롯데백화점이 K-디저트와 유명 베이커리를 선별해 추천한다.

롯데백화점은 본점의 올해 설 선물 세트 중 한과, 양갱 등 K-디저트 상품군 매출이 전년 대비 약 50% 신장했으며, 구매고객 중 20~30대 고객 비중이 전체 매출의 약 40%를 차지했다고 1일 밝혔다.

K-디저트는 전통적인 명절 선물과 비교해 부담없는 가격대에 고급스럽고 트렌디한 패키지 포장으로 색다른 명절

선물을 찾는 고객들에게 좋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롯데백화점은 올해 K-디저트 품목을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리고 물량도 30% 이상 확대했다.

먼저, 고급스러운 포장과 정갈한 구성으로 품격을 높인 프리미엄 K-디저트를 준비했다. 서래마을의 유명 디저트 브랜드 '김씨부인'에서 우리나라 전통 다과인 개성주약, 매작과, 홍옥정과, 인삼편 등으로 구성된 '아름다운 우리 다과 세트(21만4000원)'를 롯데백화점 단독으로 선보이며, 다과 브랜드 '1994SEOUL'에서는 꽃감단자, 송편, 한과 등을 구성에 맞춰 주문 제작할 수 있는 '나무 3단함 선물세트(19만원)'를 선보인다. /최빛나 기자

이연에프엔씨 점주 대상 오송공장 견학

한촌설렁탕 등을 운영하는 종합식품 기업 이연에프엔씨가 가맹점주와의 소통 강화 및 신뢰 구축을 위해 점주들을 상대로 오송 공장 견학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번 견학 프로그램은 점주들에게 본사 제품의 생산·공급 과정을 상세히 소개하고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이연에프엔씨는 매년 HACCP 인증을 통해 제품 품질 관리와 위생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점주들은 원료 입고부터 가공, 포장에 이르는 전 생산공정을 관찰하며 본사의 품질 관리 노력에 대해 높은 만족감을 표했다. /신원선 기자

롯데온, 계열사 상품 단독혜택 '월간롯데'

M.V.P 장소로 '롯데월드몰' 소개

e커머스플랫폼 '롯데온'이 오는 2일부터 8일까지 롯데 계열사 상품을 단독혜택에 선보이는 '9월 월간롯데' 행사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월간롯데'는 롯데온이 올해부터 매달 진행해 오고 있는 온라인 대표 급 행사다. 롯데온이 홍보 채널이자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며, 롯데 계열사간 시너지를 내기 위해 마련됐다. 9월의 월간롯데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여느 때 보다

가족과 함께 즐길 거리가 풍성한 것이 특징이다.

9월 월간롯데에서는 꼭 가봐야 하는 'M.V.P(Must Visit Place)' 장소로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롯데월드몰'을 소개한다. 롯데월드몰 개장 10주년을 맞아, 서울 잠실 석촌호수 일대와 롯데월드몰은 글로벌 아티스트 필립 콜버트(Philip Colbert)의 공공미술 프로젝트 '탑스터 원더랜드(9/6~29)'로 채워져 동화 같은 분위기로 변신할 예정이다. /최빛나 기자